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진화 (Lee, Jin Wha)*
백경순 (Baek, Kyung Sun)**

요 약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D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유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10부에 대해 자료를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은 높은 편이었으며, 강압적 체벌이나 방임 보다는 논리적 설명의 훈육방식이 높게 나타났고, 가장 높게 인식된 문제행동은 과잉행동-산만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 전체,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은 문제행동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강압적 체벌, 방임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논리적 설명은 부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자녀의 적대적-공격행동에 강압적 체벌, 방임, 양육역할이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고, 걱정-불안 문제행동에는 방임과 강압적 체벌이 예측 변인이었다. 과잉행동-산만행동은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부모역할 역량 강화, 긍정적 훈육방식을 위한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버지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문제행동

논문접수: 2018. 11. 12. / 수정본 접수: 2018. 11. 26. / 게재승인: 2018. 12. 1.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교신전자: bks@pcu.ac.kr)

I. 서론

영유아에게 가장 긴밀하게 1차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부모이며, 부모들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부모역할의 현대적 관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는 대부분이 맞벌이 형태로 변화하였고,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 기회가 다양한 유형으로 요구되고 있다(이운진, 김아름, 임준범, 2016). 또한 유아의 발달과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정이므로,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시 되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Parke(2000)는 이를 “아버지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와 소통 경험을 하지 못한 자녀는 의존적인 성향이었으며, 책임감이 결여되거나 사회부적응 등을 초래하였고(배은주, 2010; Rice, 2008),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임선화, 1988).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았다(권수진, 2007).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유아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독립성을 강조하고 수용적일수록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더 많이 하였다(김정주, 2009). 자녀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경험은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며, 인간의 성공적 삶에는 어린 시절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Vaillant, 2013).

최근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양육에 대한 책임과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 유아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한다(김선미, 2015).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버지교육 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아버지가 많아(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부모역할과 부모역할지능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부모역할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모역할이라는 행동은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결정체이어서 일정 정도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만, 동시에 상황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때로 일관적이지 않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갈등 상황에 접하게 되면 수많은 요소들의 논리와 욕구들의 상충 속에 그 순간에 적합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강민주, 2010; 배조경, 2012).

부모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은 적절한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기초적인 인지능력을 포함하는 정신과정 등을 의미한다(Kail & Pellegrino, 1985). 학업이나 사회에서 적응하고 기능하기 위해 지능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역할에도 상황적·맥락적인 관점에서 지적능력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부모역할지능 개념이 도입되었다. 부모역할을 단순히 양육태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선택하는 부모의 역할 태도나 성향들을 측정하는 것이다(현미숙, 2004).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동적인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밝히는 일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자녀의 특성과 맥락에 적합한 양육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나 병리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거나 발생된 문제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정자, 2003; 임미지, 문혁준, 2014).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모의 훈육방식을 들 수 있다. 훈육방식은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유형과 가치 및 태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회화의 기능이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반응방식이다(김현택 등, 1997). 아버지의 훈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

훈육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Clazada와 Eyberg(2002)는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 등 훈육방식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육방식은 유아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녀의 행동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면서도 압력을 가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저항은 최대한 줄어든다(Hoffman, 1988).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가할 때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행동 통제에 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자녀가 스스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한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무관심하며, 애정을 철회하는 방임의 훈육을 하면 자녀는 부모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는 행동이 나타난다(조은영, 2009). 강압 처벌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사과하는 행동이 덜 발달된다(조은영, 2009; Kochanska, Padavich, & Koenig, 1996). 남아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에 아버지의 강압적 처벌 훈육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남아에게는 적대적 부모양육행동이 여아에게는 온정적 부모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다(임현주, 2015). 아버지의 훈육방식이 자녀의 도덕성 발달 및 사회성 발달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조은영, 도현심, 김민정, 2010),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훈육방식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말하며(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유아의 발달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Nugesser & Watkins, 2005).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들 가운데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유아교사들의 고충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김영아, 2018; 전일우, 2014), 가정과 협력적인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므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과 훈육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정서를 지나치게 억누르고, 갈등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위축, 불안, 외로움, 불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에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행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반항 행동을 포함한다(김영신, 2015).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심각한 일탈이나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송진숙, 권희경, 2003; 최은주, 2011; Campbell, Shaw, & Gilliom, 2000), 유아기 때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문제나 장애가 더욱 심각해져서 생애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은 유아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힌 연구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강지현, 오경자, 2011;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 2014; 김보영, 2005; 김종훈, 성지현, 2014; 홍현재, 문혁준, 2013).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그 이면에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고 문제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훈육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4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아버지 210명이다. 연구 참여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약 39.5세이며 31세부터 40세까지가 약 62.86%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 졸업 비율이 약 64.76%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취업 즉 맞벌이 비율이 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와 남아 비율이 유사했고, 자녀 수는 2명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비율 역시 비슷하였다. 자세한 연구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 변인

N=210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30세 이하	1.43
	31~40세	62.86
	41세 이상	35.71
학력	고등학교	11.90
	대학교	64.76
	대학원	21.43
	기타	0.48
부부취업유무	무응답	1.43
	부부취업	58.10
	외벌이	38.57
자녀성별	무응답	3.33
	여아	49.05
	남아	47.62
자녀수	무응답	3.33
	1명	24.76
	2명	60.00
	3명 이상	14.76
자녀이용기관	무응답	0.48
	유치원	48.57
	어린이집	51.43

2. 연구 도구

먼저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모역할지능은 채일숙(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채일숙(2017)은 현미숙(2004)의 부모역할지능검사 도구를 44문항을 전제로 자신의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채일숙(2017)의 42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역할지능은 부모들이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대처하는 행동이나 태도, 생각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조은정, 박형신, 2015).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 세 개의 상위 하위 영역이 있으며, 발달자극역할은 공감, 격려, 증진, 합리적 권위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총 22문항이며, 양육역할은 융통성, 거부, 수용의 하위 영역으로 12문항이고, 거부는 역채점 문항이다. 관리역할은 통제라는 하위 영역 1개로 8개 문항이다. 문항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 .92, 이며, 발달자극역할은 Cronbach's α = .91, 양육역할은 Cronbach's α = .79, 관리역할은 Cronbach's α = .84이다.

아버지의 훈육방식은 조은영(2009)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은영(2009)은 이동희(2003)에 의해 번역된 Clazada와 Eyberg(2002)의 Parenting Style and Dimension(PSD)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다만, 조은영(2009)은 방임에서 1문항을 제외하여 21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훈육방식을 묻는 문항은 강압적 체벌 10문항, 방임과 논리적 설명 각 6개 문항으로 4점 평정 척도이다. 강압적 체벌은 Cronbach's α = .83, 방임은 Cronbach's α = .71, 논리적 설득은 Cronbach's α = .86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강선애(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강선애(2018)는 Behar와 Stringfield(1974)의 The Preschooler Behavior Questionnaire(PBQ)를 번안한 김자숙(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해당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등 세 개의 문제행동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평정 척도이다. 적대-공격성은 11개 문항, 걱정-불안은 9문항, 과잉행동-산만은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적대-공격성은 Cronbach's α = .89, 걱정-불안은 Cronbach's α = .74, 과잉행동-산만은 Cronbach's α = .81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 도구의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문제행동 설문 도구 구성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전체 신뢰도		
부모역할지능*	발달 자극 역할	공감 • 자녀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민감성 및 적절한 정서적 반응, 자녀와 감정이입적 의사소통하는 것	6	.91	.92	
	격려	• 자녀의 발달적 진보에 대해 용기나 의욕을 북돋우어 주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것	6			
	증진	• 다양한 기술을 통해 자녀의 현재 능력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되도록 고무시키는 것	6			
	합리적 권위	• 자녀의 독립성 인정 및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통솔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	4	.79		
	융통성	• 안정성과 변화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부모-자녀관계 중 필요할 때 변화하는 것	3			
	양육 역할	거부	• 부모의 성격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적대감,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현하는 것	6		.84
	수용	• 자녀에게 온정을 가지고 자녀의 장점을 강화해 주며 승인 및 지지해 주는 것	3			
	관리 역할	통제	• 부모가 일관되게 자녀의 일과를 관리하며 자녀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관리하는 행동을 하는 것	8		.83
	강압적 체벌	• 아이에게 체벌을 가한다와 같은 내용	10			
	방임	• 아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와 같은 내용	6			
훈육방식**	논리적 설명	• 아이가 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는 것과 같은 내용	6	.86		
	적대적-공격	• 싸우는 행동, 거짓말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등과 같은 행동	11	.89		
	걱정-불안	• 친구가 없이 혼자 놀거나, 불행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	9	.74		
문제행동***	과잉행동-산만	•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행동 등과 같은 행동	10	.81		

출처: * 조순옥(2016). 어머니의 역할지능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1), 95-118의 p.100.

** 조은영(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 간의 관계: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애(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구성.

3.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예비 조사를 통해 본 연구 조사를 위한 문항들을 확인하였다. 현직 유아교육과 교수 2인에 의해 각 문항들의 내용, 문항 수준 및 난이도 등을 확인하였다. 예비 조사 후, 본 조사는 2018년 9월 3주~10월 2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을 섭외하기 위해 D시 소재 유치원 중에서 만 4세 유아 학급이 최소 2학급 이상인 곳을 임의 선정한 후,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치원의 학급 교사를 통해 각 유아의 가정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문항에 협조의사를 밝힌 아버지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였다. 300부를 배부하여, 220부가 회수되어 약 73.3% 회수율을 보였고, 그 중에서 답변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자료 10부를 제외하고 210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분석이 이루어졌다.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자녀의 문제행동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자녀의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겠다. 먼저 부모역할지능은 크게 세 하위 영역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로 나뉘진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부모역할지능의 전체적인 평균은 3.94이고, 하위 영역인 발달자극역할은 3.86, 양육역할은 3.84, 관리역할은 4.11로 나타나서 5점 만점 척도인 것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자극역할은 공감, 격려, 증진, 합리적 권위로 구성되는

데, 합리적 권위가 4.31로 가장 높았고, 증진이 3.44로 가장 낮고 표준편차 역시 제일 컸다. 양육역할은 수용이 4.21로 가장 높았다. 관리역할은 통제로 4.11로 비교적 높았다.

다음으로는 훈육방식으로 논리적 설득의 평균값이 3.31로 강압적 체벌과 방임의 1.88과 1.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훈육방식을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응답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지 않았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과잉행동-산만이 2.03이고, 적대-공격성과 걱정-불안은 각각 1.63과 1.77로 낮았다.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일반적인 경향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부모역할지능	발달자극역할	(전체)	3.86 .49
		공감	3.85 .50
		격려	3.89 .56
		증진	3.44 .71
		합리적 권위	4.31 .54
	양육역할	(전체)	3.84 .49
		융통성	3.55 .62
		거부(역산)	3.75 .71
		수용	4.21 .73
		관리역할 통제	4.11 .64
전체		3.94 .45	
훈육방식	강압적 체벌	1.88 .50	
	방임	1.76 .46	
	논리적 설득	3.31 .51	
문제행동	적대-공격성	1.63 .55	
	걱정-불안	1.77 .49	
	과잉행동-산만	2.03 .61	

〈표 3〉을 기초로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 전체는 강압적 체벌($r=-.47, p<.01$), 방임($r=-.37, p<.01$)의 훈육방식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논리적 설득($r=.65, p<.01$)과는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 나타내었다. 먼저 발달자극 영역은 강압적 체벌($r=-.35, p<.01$), 방임($r=-.24, p<.01$)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논리적 설득($r=.52, p<.01$)과는 긍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양육역할에서도 강압적 체벌($r=-.60, p<.01$), 방임($r=-.36, p<.01$)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논리적 설득($r=.58, p<.01$)과는 긍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관리역할에서도 강압적 체벌($r=-.25, p<.01$), 방임($r=-.32, p<.01$)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논리적 설득($r=.52, p<.01$)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모역할지능 전체는 유아의 문제행동인 적대적-공격($r=-.37, p<.01$), 걱정-불안($r=-.31, p<.01$), 과잉행동-산만($r=-.29, p<.01$) 등과 모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 영역인 발달자극역할 역시 적대적-공격($r=-.15, p<.05$), 걱정-불안($r=-.16, p<.05$), 과잉행동-산만($r=-.15, p<.05$)의 낮은 수준의 부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양육역할은 적대적-공격($r=-.44, p<.01$), 걱정-불안($r=-.35, p<.01$), 과잉행동-산만($r=-.35, p<.01$)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리역할 역시 적대적-공격($r=-.23, p<.01$), 걱정-불안($r=-.20, p<.01$), 과잉행동-산만($r=-.16, p<.05$)과 부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성을 보면, 강압적 체벌은 적대적-공격($r=.58, p<.01$), 걱정-불안($r=.48, p<.01$), 과잉행동-산만($r=.58, p<.01$)과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방임 역시 적대적-공격($r=.47, p<.01$), 걱정-불안($r=.48, p<.01$), 과잉행동-산만($r=.44, p<.01$)과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논리적 설득은 적대적-공격($r=-.22, p<.01$)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두 유형인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①	1																
②	.67**	1															
③	.63**	.68**	1														
④	.54**	.64**	.51**	1													
⑤	.83**	.88**	.86**	.79**	1												
⑥	.55**	.59**	.64**	.51**	.69**	1											
⑦	.32**	.43**	.25**	.36**	.40**	.34**	1										
⑧	.30**	.38**	.21**	.54**	.41**	.26**	.21**	1									
⑨	.53**	.64**	.49**	.66**	.68**	.71**	.73**	.71**	1								
⑩	.26**	.36**	.31**	.48**	.42**	.30**	.16*	.62**	.51**	1							
⑪	.62**	.73**	.64**	.76**	.81**	.66**	.49**	.70**	.86**	.82**	1						
⑫	-.27**	-.37**	-.22**	-.34**	-.35**	-.35**	-.71**	-.21**	-.60**	-.25**	-.47**	1					
⑬	-.13	-.21**	-.18**	-.29**	-.24**	-.13	-.39**	-.24**	-.36**	-.32**	-.37**	.59**	1				
⑭	.42**	.49**	.37**	.52**	.52**	.36**	.24**	.62**	.57**	.52**	.65**	-.23**	-.17*	1			
⑮	-.15*	-.28**	-.15*	-.33**	-.27**	-.16*	-.52**	-.25**	-.44**	-.23**	-.37**	.58**	.47**	-.22**	1		
⑯	-.16*	-.21**	-.17*	-.26**	-.24**	-.15*	-.41**	-.17*	-.35**	-.20**	-.31**	.48**	.48**	-.11	.71**	1	
⑰	-.15*	-.22**	-.19**	-.22**	-.24**	-.17*	-.48**	-.09	-.35**	-.16*	-.29**	.58**	.44**	-.10	.73**	.66**	1

* $p < .05$, ** $p < .01$

- ① 공감 ② 격려 ③ 증진 ④ 합리적 권위 ⑤ 발달자극 역할 ⑥ 융통성
- ⑦ 거부 ⑧ 수용 ⑨ 양육역할 ⑩ 관리역할-통제 ⑪ 부모역할지능 전체 ⑫ 강압적 체벌
- ⑬ 방임 ⑭ 논리적 설득 ⑮ 적대-공격성 ⑯ 걱정-불안 ⑰ 과잉행동-산만

2.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상관관계에 기초해서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문제행동 세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역할지능의 세 하위 영역인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과 강압적 체벌, 방임, 논리적 설득의 훈육방식과 함께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문제행동의 세 하위 유형의 회귀분석을 위해 살펴본 Durbin-Wat-

son은 1.72~1.79 이며, VIF는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역할지능의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과 훈육방식의 강압적 체벌, 방임, 논리적 설득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1모형에서는 강압적 체벌($t=10.29, p < .01$)이 적대적-공격 문제행동을 약 3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모형에서는 훈육방식의 방임($t=2.79, p < .01$)의 설명력이 약 2.4% 추가되었고, 3모형에서는 부모역할지능의 양육역할($t=-2.11, p < .05$)이 1.4%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약 37.5%의 설명력을 보였다. 강압적 체벌과 방임은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양육역할은 부적적인 방향으로의 예측 변인이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이 적대적-공격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인	B(β)	t	R ² (ΔR^2)	F
1	(상수)	.42	3.47	.34(.33)	105.83**
	강압적 체벌	.64(.51)	10.29**		
2	(상수)	.25	1.90	.36(.36)	58.53**
	강압적 체벌	.52(.47)	6.81**		
	방임	.23(.19)	2.79**		
3	(상수)	1.06	2.62	.38(.37)	41.16**
	강압적 체벌	.42(.38)	4.83**		
	방임	.23(.19)	2.78**		
	양육	-.16(-.15)	-2.11*		

* $p < .05$, ** $p < .01$

다음으로 걱정-불안 문제행동이다. 1모형에서는 훈육방식의 방임이 걱정-불안 행동의 약 23.4%($t=7.97, p < .01$)를 설명하였고, 2모형에서는 훈육방식의 강압적 체벌의 설명력 5.5%가 추가되어 약 28.9%의 설명력을 보였다. 방임과 강압적 체벌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걱정-불안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부모역할지능의 세 하위 영역은 걱정-불안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이 걱정-불안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인	B(β)	t	R ² (ΔR^2)	F
1	(상수)	.86	7.23	.23(.23)	63.51**
	방임	.52(.48)	7.97**		
2	(상수)	.64	5.00	.29(.28)	42.11**
	방임	.34(.31)	4.32**		
	강압적 체벌	.29(.29)	4.01**		

* $p < .05$, ** $p < .01$

마지막으로 과잉행동-산만 문제행동이다. 1모형에서 강압적 체벌이 과잉행동-산만 행동 ($t=10.28, p < .01$)의 약 33.7%를 설명하였다. 2모형에서는 방임($t=2.16, p < .05$)의 설명력이 1.5% 정도 추가되면서 총 35.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과잉행동-산만 행동에서도 부모역할지능의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자세한 설명은 <표 7>과 같다.

<표 7>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이 과잉행동-산만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인	B(β)	t	R ² (ΔR^2)	F
1	(상수)	.69	5.06	.34(.33)	105.70**
	강압적 체벌	.72(.58)	10.28**		
2	(상수)	.54	3.60	.35(.35)	56.10**
	강압적 체벌	.61(.49)	7.12**		
	방임	.20(.15)	2.16*		

* $p < .05$, ** $p < .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점들을 논의하겠다. 첫째,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 자녀의 문제행동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역할지능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김정원과 김정실(2014)이 조사한 아버지 역할지능의 결과와 유사하며, 조은정과 박형신(2015)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훈육방식에서도 강압적 체벌과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훈육방식에 비해 논리적 설명 유형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김선미(2015)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조사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공히 논리적 설명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으로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엄한 아버지 역할에서 다소 벗어나, 자녀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아버지 역할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에서는 적대적-공격, 불안-걱정 보다는 과잉행동-산만 문제행동이 다소 많다는 인식을 보였으나, 문제행동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김선미(2015)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머니에 비해 문제행동이나 훈육방식에 있어서는 인식이 다르며, 양육의 우선적인 책임자로 간주되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문제행동 인식이 낮은 원인을 김선미(2015)의 결론과 관련지어 판단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역할지능 전체와 하위 영역인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그리고 관리역할 모두 적대적-공격,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의 모든 문제행동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서,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줄어들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강압적 체벌과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훈육 방식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긍정적인 상관성을 보여, 아버지가 부정적인 훈육을 많이 하면, 자녀들의 문제행동 역시 많이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논리적 설명과 같은 훈육방식을 취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은정과 박형신(2015)이 아버지의 역할지능이 자녀의 또래유능성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래유능성은 친사회적 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유아의 특성으로 또래관계에서 유능

감을 가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제행동이 감소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와 조은정과 박형신(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은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29~38%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역할지능의 세 하위 영역은 걱정-불안행동, 과잉행동-산만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아니었고, 적대적-공격행동에 한해서 양육역할이 부적인 방향으로의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그 영향력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이는 조은정과 박형신(2015)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지능이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지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훈육방식 중 강압적 체벌과 방임은 모든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이는 최선녀와 문연경(2016)이 아버지의 강압적 체벌과 방임, 논리적 설명이 남아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서 아버지의 훈육방식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만 4세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과 훈육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우선, 아버지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밀감, 사랑,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의 부모역할지능에 대한 인식도 높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높은 예측 즉 인과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든 문제행동과 부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역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버지의 부모역할 역량의 핵심은 아버지 중심이 아닌 자녀 중심으로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일회성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벤트적 성격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201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 역량을 양육역량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아버지의 강압적 체벌이나 혹은 이와는 반대의 방임은 자녀 문제행동의 원인이다(Rinaldi & Howe, 2012). 강압적 체벌은 자녀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으나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저항 혹은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조은영, 2009; Lei, Chiu, Cui, Zhou, & Li, 2018). 본 연구에서도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 모든 문제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아니

라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도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강압적 체벌과 방임 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강압적 체벌과 방임은 아동학대로도 연결된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체벌에 대한 부모의 무감각으로 체벌을 곧 훈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최은영, 이진화, 김성진,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강압적 체벌이 아버지에 의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아동학대 원인이 되는 잠재적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아버지 교육이 책임 있는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임은 아버지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이 어머니의 전유물로 간주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있어서 민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생리적인 특성 외에는 그 간극이 모호해 지고 있다(김은설, 2012). 즉, 아버지 역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과 목소리에 반응하는 민감성을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런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김은설(2012), 이윤진 외(2016)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요구에 적합하고, 일회성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버지 부모역할 역량을 향상시키고 둘째,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버지의 민감성을 함양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 즉 직장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서 인식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생애 주기에 따른 아버지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연구의 의미가 있으나, 만 4세 유아의 아버지에 국한된 점, 설문 조사 문항설계 한계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아버지가 직접 확인한 점 등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민주(2010).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애(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고정자(2013). 청소년의 개인 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변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121-143.
- 권수진(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놀이성,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4(2), 89-121.
- 김보영(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아의 성(性), 보육기간에 따른 영아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15). 부와 모 간의 양육태도 · 훈육방식 유아문제행동 인식 차이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 한태숙, 황혜정(2004). 유아의 정서지능, 인지능력,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77-298.
- 김영신(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2018). 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도구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1), 159-182.
-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 김은설(2012.06).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04호.
- 김정원, 김정실(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9(1), 29-47.
- 김정주(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훈, 성지현(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인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391-410.

- 김현택, 박동건, 성한기, 유태용, 이순묵, 이영호, 진영선, 한광희, 황상민(1997). **심리학: 인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배은주(2010). 기독교가정의 부성부재와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조경(2012). 어머니의 역할지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숙, 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유해미, 정주영, 양유진(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연구보고 2013-32). 육아정책연구소.
- 이동희(2003). 유아의 기질, 부모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진, 김아름, 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연구보고 2016-16). 육아정책연구소.
- 임미지, 문혁준(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 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3-20). 육아정책연구소.
- 전은주(2015).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유형, 양육효능감 간의 구조 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9(4), 391-412.
- 전일우(2014). 유아교사의 제반 변인에 따른 유아문제행동 지도능력과 교사-유아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639-659.
- 조순옥(2016). 어머니의 역할지능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1), 95-118.
- 조은영(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 도현심, 김민정(2010).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235-249.
- 조은정, 박형신(201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유능성과 일상

- 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1), 27-48.
- 채일숙(201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인성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녀, 문연경(2016).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7, 125-156.
-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5-22).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주(2011). 부모효능감이 유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미숙(2004). 아동 부모교육. 상담을 위한 부모역할지능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현재, 문혁준(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45-274.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467-488.
- Cla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Hoffman, M. L. (1988). Mor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 M. Lamb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pp. 497-548). Hillsdale, NJ: Erlbaum.
- Kail, R., & Pellegrino, J. W. (1985). *Human intelligence: Perspectives and prospects*. New York: Freeman.
- Kochanska, G., Padavich, D. L., & Koenig, A. L. (1996). Children's narratives about hypothetical moral dilemmas and objective measures of their conscience: Mutual relation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7, 1420-1436.
- Lei, H., Chiu, M. M., Cui, Y., Zhou, W., & Li, S. (2018). Parenting style and aggression: A meta-analysis of mainland Chinese children and youth.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94, 446-455.
- Nugesser, R., & Watkins, V. (2005). Pre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reactions to challenging classroom behavior: Implications for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6, 139-151.

- Parke, R. (2000). Father-infant attachment-evidence and implications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 Rice, F. P. (2008). *The Adolescent*. Boston: Allyn & Bacon.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 266-273.
- Vaillant, G. E. (2013). *Triumphs of experience: The man of the Harvard grant study*. Harvard University: Belknap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discipline styles on four-year-ol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Lee, Jin Wha (Paichai University)

Back, Kyung Sun (Paichai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discipline styles on their four-year-ol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For this study, 210 fathers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 parental intelligence was high on average. Also the means of fathers' forceful punishment and neglect wer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reasonable explanation. Children's hyperactivity-distraction showed the highest mean amo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dditionally, there were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intelligence, and its sub-scales, nurturing role, care-giving role, and management rol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lso, fathers' forceful punishment, neglect(discipline styl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ll types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However, reasonable explanation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problem behaviors. Second, forceful punishment, neglect, and care-giving rol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hostile-Attack behavior. Also, forceful punishment and neglect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worry-anxiety and hyperactivity-distr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to reduc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in relation to parental intelligence and discipline were discussed.

Keywords: father's parental intelligence, discipline style, problem behavior